

## 도서관 담론에 나타나는 ‘가벼움’의 기원에 대하여

김 정 근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담론과 가벼움

돈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물량적 힘이 중흥으로 판을 치는 이 어이없고 바보스러운 사회에 도서관과 그 관련기관들을 건설해냄으로써 인간의 지식과 정보의 흐름에 신빙성, 질서,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과제야말로 실로 지난한 일일 것이다. 처음부터 그것은 싸움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기에 이 도서관과 그 관련기관에 관한 제도와 전통의 확립이라고 하는 세계사 속의 ‘보편적’ 과제 가운데 하나를 20세기의 마지막 밤을 지새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 속에서 구현해내는 일이야말로 그것에 걸맞은 구도, 계획, 전략, 전술, 그리고 그것들을 견인해낼만한 목적의식이 뚜렷한 인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사안이 될 것이다. 여기에 사업의 당사자들이 주체답지 못한 피상성을 노정하고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더구나 그들이 용병처럼 남의 싸움을 대신 치듯해서야 결과는 보나마나일 것이다. 지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우리 문헌정보학계나 도서관현장 할 것 없이 이 힘겨운 싸움에서 상황을 마주보는 대결성의 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

다. 싸움자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땅 안에서 치러내어야 할 순 우리 몫인데도, 그러기에 거기에는 접전과 육박이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정작 싸움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외국에서 온 그 무슨 군사고문관이라도 되는 듯 비조준성과 철없음, 그리고 전혀 상황에도 맞지않는 ‘여유’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 육박성의 부재, 철없음, 그리고 분별 없는 태평을 최근에 우리 비즈니스의 한복판을 강타하고 있는 외풍의 요소에 대응하는 우리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현장의 대처방식에서도 확인하게 된다. 정보기술과 관련한 외풍문제를 생각해 보자. 당사자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철들이 없으며 마치 미아와도 같이 헤매고들 있는가? 도서관과 그 관련기관에 대한 제도, 의식, 전통이 채 성립도 안된 이 마당에 그것들의 완성을 전제로 해서 말해지고 있는 남의 이야기를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고만 있으면 어찌자는 것인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현장의 현단계를 뻔히 눈으로 보면서 전자도서관 (electronic library), 디지털도서관 (digital library), 가상도서관 (virtual library), 사이버도서관 (cyber library), 벽없는 도서관 (library without walls) 따위나 떠들고 있으면 도대체 어찌자는 것인가?

마치 살 길이 거기에만 있다는 듯 최대의 강조를 해대니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것인지, 유행이나 타고 말자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언급 자체를 말자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대치(replacement)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추가(addition)와 보완(complement)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일의 선후와 경중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하다면 이것은 의미의 강조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균형의 문제에 다름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그것이 문제시되는 저개발 사회의 경제정책이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가? 그 중점이 생필품 정책에 있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선진경제의 흉내를 내고 있으면 되겠는가? 대답은 자명한 것일 것이다. 나는 여기서 도서관문제의 당사자들이 ‘개척기’에 놓인 우리 도서관현장의 현단계를 발견하는 일과, 그래서 ‘개척자’일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도서관 장서의 문제는 그야말로 도서관 경영 자체의 생명선과 같은 것이다. 그런만큼 그 해법 또한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일단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당사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는 분명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인다. 사람들은 너무도 피상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려 든다. 그들은 너무나 쉽게 장서문제를 ‘접근(access)’으로 풀려고 든다. 무조건 전자매체에 뛰어들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집착과 열광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는 입구는 있으나 출구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한갓 말잔치는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서관현장의 현단계에 적합한 해결책이 접근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안이한,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데서 나오는 입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우리 도서관현장의 현단계에서는 ‘소장(ownership)’이 장서문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람들이 거의 맹목적으로 준거집단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는 미국에서조차 그 내용을 깊이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마찬가지로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접근은 어디까지나 기본인 소장의 보완과 강화를 위한 보조의 위치에 세워 두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튼튼한 실물장서(physical collection)의 소장이야말로 우리 도서관현장의 현단계 한 차원 끌어 올리는 데 관건이 된다는 별로 새로운 것도 없는 평범한 진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고자 한다.

소장과 접근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 주변의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한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992년 말경이었다. 그 날은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발전기획반이 주관하는 도서관 직원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다. 세미나의 주제는 ‘우리는 UBC 도서관을 이렇게 보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도서관 연수보고’로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도서관 직원이 6주간의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보고회를 가지는 자리였다. 보고회는 매우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동료사서들이 모처럼 외국에 나가 직접 경험하고 전달하는 새로운 정보에 접하고서는

흐릿한 기분이 되는 듯했다. 두 사람의 보고가 끝이 나고 이어서 자유토론시간이 있었다. 토론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 보고자 가운데 한 사람의 입에서 이와 같은 말이 슬쩍 지나갔다. “UBC 도서관에서는 저널 감종작업을 하고 있더군요. 한 2,000종 줄인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제 돈도 모자라는데 저널 더 살 필요 없겠어요. 우리도 꼭 좀 줄여버립시다.”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이 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얼른 들었다. 그래서 즉석에서 UBC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무턱대고 그들을 따라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정도로 토를 달아 주었다. 물론 이런 정도는 단기간의 해외연수자로서는 능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다. 사물을 종합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시적인 판단착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수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관점 또는 사고의 유형이 사실은 우리 도서관계 전체가 안고 있는 큰 문제와 연계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1995년 12월이었다. 그 날도 나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주관하는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도중 어느 대목에서 한 사서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번 서울에 연수 갔을 때 어느 도서관에서 온 사서 한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도서관에서는 책 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통신망을 통해 다 구할 수 있는데 뭣하러 비싼 돈 주고 책 사느냐는 거지요.”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역시 아차 하

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즉석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너무 건너 뛰려고 한다는 요지의 토를 달고 넘어 갔다. 나는 이 경우도 사서 개인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 한번쯤 저지르게 되는 판단의 오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내가 지적해 두고자하는 것은 이런 유형의 사고가 실은 우리 도서관계가 지금 안고 있는 큰 유형의 혼란과 판단착오 현상에 연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그런가? 과연 이제 도서관은 더 이상 책을 안 사도 되는가? 저널을 감종해도 되는가? 내가 그 뒤에 조사해 본 바로는 UBC대학 도서관은 그 당시 보유 저널타이틀 24,000종 가운데 2,000종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었다. 그것도 협력망을 통한 보완조치가 완벽하게 취해진 조건하에서 진행되는 계획이었다. 우리는 어떠했는가? 지금도 큰 차이가 없지만 그 말이 있던 1992년 당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구입 연속간행물 종수는 고작 1,892타이틀이었다. 결호율이 높은 수증자료까지 합한 총종수가 정확히 2,837타이틀이었다. 거기에다가 우리의 경우 협력망이 크게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무엇을 믿고 저널 종수를 줄인다는 말인가? 나는 이것을 너무 건너 뛰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책을 안 사도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같은 브리티쉬 컬럼비아대학 도서관의 경우를 보자. 이 도서관은 연구도서관협의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의 108개 회원 도서관 가운데 종합순위가 중상위권에 머무는 도서관이다. 캐나다 내

에서는 대규모 대학도서관에 속하며 우리나라로 치면 내가 사례로 삼고 있는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위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대학은 자매대학 관계에 있다.) 장서수를 보자. 말이 있던 1995년 당시 이 도서관의 장서는 이미 300만권을 넘어서 있었다. 거기에서 연평균 10만권 이상을 추가하고 있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어떠했는가? 고작 60만권을 헤아리고 있었다. (복본이 많아 타이틀로 치면 20만 정도였을 것이다.) 증가율은 연평균 2만권 미만이었다. 그래도 책을 안 사도 되겠는가?

나는 위에서 사례를 주변의 사소한 데서 구해 보았다. 뜯구름 잡는 소리의 사례는 사실 큰 데서 구하면 더 많다. 이 나라 문헌정보학계의 공식 학회들도 그런 곳 가운데 하나이다. 1990년대 들어 학회 모임에 참석해 본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거기서 무엇인가 조금은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는가? ‘도서관 패배주의’와 같은 ‘음모’를 눈치 채지 못했는가? ‘장서 허무주의’가 장내를 도도히 흐르고 있지 아니하던가? 거기 모이는 많은 사람들은 소장(ownership)을 기초로 하는 장서(collection)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통신망, 디지털 라이브러리, 페이퍼레스 라이브러리(paperless library)만 외쳐대고 있었을 것이다. 접근(access)이면 만사 오케이라는 식이었을 것이다. 나는 몹시 궁금하다. 도서관을 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일로 ‘도서관’이 깡그리 실종되고 없는 것일까? 도서관 현장이 아주 바닥에서 기고 있으며 장서가 왜소하기로 이를 데 없는 이 땅의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려고들 있을까? 사실 이 문제는 학문의 식민

성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좀 더 정치한 논구가 요구되는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그렇게 할 겨를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선은 쉽게 손에 잡히는 몇가지 원인 같은 것만 짚어 보고 넘어갔으면 한다. 왜 사람들은 장서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가? 왜 그들은 이 처럼 ‘순진하고, 단순하고, 성급하고, 그래서 가벼운’ 것일까? 왜 그들은 자신들이 ‘흠모해 마지 않는’ 서양 사람들 보다는 더 침담으로 달리려고 하는 것일까?

### 가벼움의 기원

우선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가벼움’은 서양문헌읽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다른 학문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은 서양문헌, 특히 미국문헌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되는 한가지 요건으로 서양의 언어로 된 책과 논문들을 골고루 편벽되지 않게,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의 실천이 말같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무엇이 적절한 문헌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 내용이 이 땅의 현실에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한국사람이 서양문헌을 읽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며, 또한 너나할 것 없이 읽는 속도가 빠른 형편이므로 골라서 제한된 쪽수를 제한된 시간

에 읽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어떻게 골고루 한 쪽으로 기울지 않게 읽어내느냐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 역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문법적으로 정확히 읽는다는 것보다 어떻게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느냐의 문제에 와서는 사실 '자신'을 말할 사람이 그다지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도서관 문장은 언어적 의미를 뛰어넘어 문화적 의미를 띠고 있기가 일쑤이기에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확히 읽어낸다는 일은 그야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가용한 서양문헌이 좀 많은가? 그 많은 문헌 가운데서 어떻게 적절한 것들을 골고루 골라 읽어낼 것인가? 가령 장서개발 분야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만 일년에 평균 300편 이상의 중요한 논문과 저술이 쏟아져 나온다. 보통일이 아닌 것이다. 나는 이 땅의 다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이 서양문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본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이 독해능력이 모자라 서양문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 자체는 그다지 흠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문제는 걸려 넘어진 사람이 도무지 부적절한 자료를 편벽되게 부정확하게 읽고서도 큰소리치며 담론형성자 구실을 하려는 데 있는 듯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학문함에서 사이비성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은 나의 과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소장 대 접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국내의 문헌 가운데 적절한 서양문헌이 선정되고 그것들이 편벽되지 않게 고르게 그리고 정확히 소화가 된 바탕 위에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경우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서양의 문헌을 가능한한 골고루 정확하게 읽어보라. 그 어디에 지금 이 땅에서 일고 있는 것과 같은 디지털이나 접근에 관한 '환상'과 '광기'가 판을 치고 있던가? 적어도 '환상'과 '광기'가 담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튼튼한 기초가 바탕이 되었을 때 논의는 자연히 무거워지며 적실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런 기초가 바탕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의 장서문제가 논의되니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디지털' 하면 뛰게되고 '엑세스' 하면 또 뛰게되는 것이다. 뛰다 보니 가속이 붙어 서양사람들보다도 더 뛰게되는 것인지는 모른다.

다른 한가지 왜 이땅 문헌정보학계의 다수 담론형성자들이 소장과 접근의 논의에서 가벼워지고 피상성을 띠게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발전의 '단계'(stage)에 대한 인식의 오류문제이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서양문헌을 제대로 찾아 읽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의 연구자들은 한편 허위의식에서, 다른 한편 현실적 필요에 따라 서양의 문헌에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노출되고 그에 의존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그들이 올바른 학문적 입장을 견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연구자로 하여금 양의 동서에 놓인 도서관현장들의 '단계'에 대한 혼란과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양문헌을 자꾸 읽는 사이에 그것에 중독현상을 일으켜 서양의 문헌

이 전제로 하고 있는 서양의 도서관현장과 이 땅의 도서관현장을 마치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한 것처럼 여기는 착각에 빠져들고 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도서관’(library), ‘장서’(collection), ‘소장’(ownership), ‘접근’(access) 따위의 개념을 양의 동서에다 대고는 무차별적으로 적용해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전제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같이 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고문관’(advisor) 학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그리고서도 어떻게 책임있는 ‘주체’(central forces)의 학문이 될 수 있겠는가? 서양의 도서관은 그것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그 자체의 발전유형, 리듬,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서양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도서관은 그것의 역사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그 나름의 발전유형, 리듬,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이 특수성의 요소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특수성, 즉 ‘고유한’ 발전단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고서는 담론은 현실로부터 곁돌고 말게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의 맹점이기도 한 것이다. 대상의 특수성에 대한 분별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념을 구사하며 ‘우리도 서양처럼 되자’, ‘서양을 따르자’라고 해보아도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접근 대 소장의 문제도 서양의 문헌이 갖다 대어주는 고무줄에 따라 풀쩍 뛰고 말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나름의 증거의 고무줄을 마련하여 거기에 따

라 현실에 맞게 뿔만큼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이 비참할수록 사람은 미래에 기대를 걸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정신의 상태가 몽환적, 환상적이 되는가? 나는 근래 우리 문헌정보학계의 담론현장에 부적 고개를 쳐드는 ‘21세기 도서관’, ‘미래도서관’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오늘의 준비가 없는데 내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현실의 기반이 없는데 미래가 어디에 있겠는가? 거지 꺾다리 셋이서 굴다리 밑에서 소주 한병씩을 비우고 ‘세상은 우리의 것’, ‘내일은 우리의 것’이라고 고향을 내질렀다고 치자. 이튿날 아침 그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과연 ‘세상은 우리의 것’, ‘내일은 우리의 것’이 되어있겠는가? 요컨대 현실이 어렵다고하여 연구자들이 그것을 피하면 안된다. 그것과의 대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어두운 현실일수록 연구자들은 오늘 이 땅의 도서관현장에 밀착하면서 그것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그 현장과 함께 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21세기적’도 아니며 ‘미래적’도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 땅의 문헌정보학 연구자 가운데는 의외로 환상을 쫓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들은 종교적 몽상가들의 행태와도 같이 한편 눈앞의 현실은 외면하고 다른 한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집착한다. 그 집착에는 광기의 요소도 있는 것 같다. 서양의 저자들 가운데도 흑세무민하는 축이 많다. 그들은 아류들로서 근거도 없이 고향을 치는 데마고그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땅의 연구자들 가운데는 아류와 데마고그들의 감언이설을 따라나서는 사

람들이 많은 듯하다. 이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반면 서양의 저자들 가운데도 선량한 다수는 책임있는 주체들이다. 그들은 자기네 사회의 도서관현장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할 뿐아니라 남의 사회의 특수성에까지 지적 영향을 미친다. 나는 이 땅의 도서관 당사자들이 매양 아류와 데마고그들에 현혹될 일이 아니라 이와같은 진지한 저자들을 힘써 발굴하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땅의 도서관 문제가 소장이 축이 되며 접근이 보조적 위치에 서는 상식의 구조 속에서 도약을 위한 해법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땅에서 도서관 건설이라고 하는 지난한 과업의 수행과정에 자꾸만 도서관과 장서 자체의 죽음을 속삭이는 노이즈가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이즈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내가 근래 찾아낸 서양의 진지한 저자 두 사람을 인용해두고자 한다.

독서는 개인과 사회를 위하여 중요하다. 종이 매체는 지식습득을 위한 지속적 독서(sustained reading)를 위해서는 최상의 수단이다.

〈Walt Crawford &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 Reality (Chicago : ALA, 1995), p.13〉

컴퓨터는 데이터나 작은 패킷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에 정통한 사람이라도... 아직 독서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두세 패러그래프 이상되는 길이의 텍스트를 읽는 데는 종이매체가 단연 선호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위의 책, p.18〉

거의 모든 도서관들은 특수한 영역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긴요한 필요에 응하기 위하여 인쇄물과 다른 매체로 구성된 튼튼한 장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튼튼한 실물장서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일뿐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성공적인 미래도서관들은 원격자원에 대한 접근과 연계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수용하는 실물장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은 자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실물자료(그리고 비실물의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접근을 활용하는 데 따르는 위험부담, 비용, 혜택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서들과 도서관의 재정적 후원자들은 도서관의 자원을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가지의 획일적인 해결책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은 특히 모든 도서관 자원은 전자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따위의 우스꽝스러운 생각은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미래는 소장과 접근의 공존시대인 것이다.〈위의 책, p.181〉

## 마무리

구하면 찾아진다는 것인가? 찾으면 얻어진다는 것인가? 내가 위에서 인용한 두 저자 Walt Crawford와 Michael Gorman이 북미를 중심으로 펼치는 일련의 주장과 활동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 중 한 사람인 Michael Gorman이 내가 사는 부산을 방문하였다.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는 동아대학교의 초청을 받고 이 대학의 개교 50주년 기념 해외석학 초청 강연회에서 논문을 읽기 위하여 1996년 11월 24일-25일 양일간 부산에 머물게 된 것이다. 나는 동아대학교 도서관측의 주선으로 첫날 저녁을 그와 함께 이야기하며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튿날 강연회에서는 토론부분의 통역을 맡기도 하였다. 이 두 차례 만남의 기회를 통하여 나는 그의 발언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안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두마디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subsiding'과 'giving way to' 라는 표현이었다. 그의 진단인즉 북미와 유럽에서 80년대까지 종이 없는 도서관, 벽없는 도서관, 가상도서관 따위에 잔뜩 기대와 환상을 품었던 사람들의 기세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그러들고 있으며 (subsiding) 현실앞에서 굴복하고 있다는(giving way to) 것이었다. 그 현실이란 바로 이용자의 요구라는 것이었다. 그는 재삼 힘주어 말

했다. 가상도서관이란 기술광신주의자들(technolusts)이 연구실의 책상 앞에서 만들어 낸 개념으로서 살아 숨쉬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입했을 때 그것은 과대선전되는만큼 작동이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제한된 범위의 유용성이 인정될 따름이라는 것이었다. 이용자는 예나 지금이나 꼭 같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인쇄매체를 선호하고 있으며 벽있는 도서관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 숨을 가다듬고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뒷북을 치고 있는 꼴이 아닌가? 북미와 유럽에서 이미 실험과정을 거쳐 폐기된 그 무엇에 우리는 이제 사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Michael Gorman은 우리가 아는 대로 AACR2의 편집인이다. 그는 자료조직과 도서관 전산화분야의 전문가이다. 그리고 그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프레스노)의 현직 도서관장이자. 동시대를 사는 세계 속의 같은 도서관인으로서 우리는 그의 발언에 일정정도의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 관련 읽을거리

- Buckland, Michael. *Redesigning Library Services : A Manifesto*. ALA, 1995.
- Crawford, Walt and Gorman, Michael. *Future Libraries : Dreams, Madness, and Reality*. ALA, 1995.
- Harris, Michael H. and Hannah, Stan A. *Into the Future :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Post-industrial Era*. Ablex, 1994.
- Lee, Too-Young. 'Into the Digital Age : A Complement or Displacement?'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21st Century*. Seoul, September 10-13, 1996. pp.1-7.
- Roszak, Theodore. *The Cult of Information : A Neo-Luddite Treatise on High Tec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True Art of Thinking*.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ress, 1994.